

오늘 총본부에서 종신서원 10년 이하 수녀님들의 국제적 모임을 “우리의 친교는 성령 안에서 아버지와 그 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나누는 것입니다. - 세상을 매료시키는 친교의 선물-”이라는 주제로 시작했습니다.

저희는 축성봉헌 생활의 해에 이 모임을 할 수 있게 된 것과 저희의 성소를 더욱 깊이이고 사명의 질을 높이기 위해 빠스또렐라인 우리 자신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근본, 원천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을 특별한 선물로 여깁니다.

이 기간 동안 Centro Aletti(이탈리아)의 식당에 있는 마르코 루프닉 신부님의 “베타니아의 식사”라는 모자이크 이콘을 목상할 것입니다.

세계 각 공동체에서 열 일곱 명의 수녀님들이 참가했으며, 면학 때문에 몇 년 동안 로마에 거주하는 네 명의 수녀님들이 강의 내용의 스페인어, 포르투갈어, 한국어, 영어 통역을 담당합니다. 총통솔 양성담당인 마리사 로세르 수녀님과, 마리타 피노텔리 총장 수녀님께서 함께 동반하십니다.

이 체험을 할 수 있는 것에 대해 감사하며 저희의 마음이 성령의 활동에 온순하고 개방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의심의 여지 없이 선한목자예수님께서 저희 각자를 위해 이미 마련하신 놀라운 일들이 매일매일 놀라움과 감탄을 자아내게 하도록 저희를 내어맡길 수 있도록 여러분께 기도 부탁드립니다.

이 한 달 동안의 삶이 수도회에 대한 소속감과 저희가 떠나온 공동체 안에서 형제애, 하느님 백성을 위한 열정을 더욱 튼튼히 하며 친교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.

이제 저희를 소개하겠습니다.